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0월 11일(금)

윤석열 대통령,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

- 역내 대표 가치 공유국인 호주와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 강화 -
- △국방·방산, △공급망·경제안보 등 핵심 분야 협력 방안 논의 -

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시간 10/11, 금)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「앤소니 노먼 알바니지(Anthony Norman Albanese)」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,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고,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<포괄적 전략 동반자>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

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 하고,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·방산 및 공급망·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,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와 관련,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,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.

※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

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. <끝>